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Chungcheongbuk-do Council on Social Welfare
신문광고문의 : 043)234-0840~2
FAX : 043)234-0849 E-mail : cbssn@naver.com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302호

충북사회복지
CHUNGBUK SOCIAL WELFARE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SSN 충북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역적응센터입니다.
TEL : 043)238-0840~1 FAX : 043)238-0842
E-mail : hana043@unimail.or.kr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302호

제 251호 대표전화 043)234-0840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코로나19 극복 한마음… "모두 함께 힘 모으면 가능해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구에 '이머전시 푸드팩' 지원

국내 최초… 장애인 · 노인복지관 등 어려움 겪는 취약계층 지원
대구광역푸드뱅크-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 네트워크 활용 전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에 이머전시 푸드팩을 지원했다.

전국푸드뱅크는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정을 위해 대구시광역푸드뱅크, 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긴급 구호식품 지원 사업을 12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하는 이머전시 푸드팩은 대구지역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이 평소 이용하던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기관이 코로나19 여파로 휴관함에 따라 결식이 우려되므로 이들에게 즉시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담긴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공적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한 재가 결식위기 계층을 발굴, 식품과 생활용품이 담긴 이머전시 푸드팩을 전달했다.

이머전시 푸드팩은 전국푸드뱅크에서 물품을 지원하면 대구시광역푸드뱅크와 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가 네트워크를 통해 외출이 어려운 취약계층 가정에 직접 전달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1차 이머전시 푸드팩 2000개에는 결식 위기 계층이 긴급하게 먹을 수 있는 통조림, 햄, 국수, 카레, 음료 등이 포함된 식품과 생활용품과 함께 관세청에서 기부한 마스크가 담겼다.

전국푸드뱅크는 앞으로 공적 지원체계 사각지대에서 식품을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에게 생수, 라면, 쌀, 통조림 등 즉시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담긴 이머전시 푸드팩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가장 피해가 큰 대구지역 결식 위기 계층의 먹을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머전시 푸드팩 사업을 긴급히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푸드뱅크는 도움이 절실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즉시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지원하는 이머전시 푸드팩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대전, 충남북, 세종지역 푸드뱅크 임직원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푸드팩을 포장하고 있다.

충북도, 마스크 56만 5천매 긴급 지원

임산부 · 긴급돌봄 아동 · 노인 · 감염 우려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주민과 접촉 많은 대중교통시설 종사자 · 각종 의료시설에도 배부

충북도는 11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특별교부세 2억 4천만원을 긴급 투입하여 마스크가 시급히 필요한 곳에 총 56만 5천매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급분은 3월중에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임산부 · 어르신 · 어린이 등 취약계층, 코로나19 대응 현장인력, 생활밀접 서비스 인력, 약국없는 읍면지역 주민, 대구 · 경북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 인근 지역주민 등 마스크 공급이 시급하고 절실한 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주요 공급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에 취약한 임산부 3,803명에게 2만 4천매를 최우선 지원하고, 어르신 장기요양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등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복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들에게 10만 4천매를 긴급 지원한다.

또한 긴급돌봄 아동을 위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에 어린이용 마스크 9만 3천매를 지원하고, 아이 돌보미에게도 7천매를 투입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어린이 안전망을 더욱 강화한다.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한 소방인력에 1만 5천매, 민간병원 선별진료소 의료인력에 1만매 등 원활한 코로나19 현장 대응을 위해서도 투입된다.

업무 특성상 주민들과 접촉이 많은 버스운전기사, 택시 운전기사, 상인회 등에 3만여매를 투입하여 도민들이 불안감 없이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총 20만매를 긴급 투입하여 약국 없는 44개 읍면을 포함 도내 11개 시군에 인구대비 산정 배부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이에 앞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진자 접촉자와 역학조사반원, 구급차, 방역반, 정신요양시설, 양로시설 등에 총 34만 7천매를 배부하고,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괴산 장연면 주민에게 지난 7일 마스크 1만 1천매를 배부한 바 있다.

충북도는 지난 8일 제천 청풍면에 대구지역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에 이어 보은군(장안면) · 충주시(동량면)에도 생활치료센터가 운영될 예정으로, 신규로 운영될 지역주민에게도 1만 2천매의 마스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공적 물량 확대 정책으로 마스크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적은 물량이지만 임산부, 긴급돌봄 아동, 어르신,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생활치료센터 인근 주민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 긴급 투입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충북사회복지단체 "재난 기본소득 신속 지급해야"

"정부 · 지자체 차원 재정정책 도입 시급… 국민의 삶 유지에 필수"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와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는 20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각급 학교 개학 연기, 휴업, 재택근무 등 시민의 삶이 위축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를 비롯해 전국민이 사회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117만7000가구에 최대 50만원, 전주시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 여명에게 52만7000원, 그리고 강원도는 소상공인 · 실직자 등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키로 했다"며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사회복지계에서도 재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실현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정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와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는 "충북도민은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한다"며 "재정지원은 시점을 놓치면 그 의미나 실효성이 반감되므로 코로나19로 인해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국민의 삶이 최소한이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도, 취약 노인 돌봄서비스 체계 강화

코로나19 '심각 단계'… 지역 내 경로당 등 4195곳 운영 잠정 중단
전화안부 주 2회→일 1회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강화 · 심리상담 지원

충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경로당, 복지관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인 취약계층의 복지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노인 돌봄서비스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심각단계' 상향에 따라 충북지역 4195곳의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운영은 지난달 중순부터 잠정 중단하고 있다.

우선 충북도내 11개 시군에서 운영중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기존 시책을 보호 대책으로 운영한다.

독거어르신 등 취약돌봄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전화 안부는 기존 주 2회에서 일 1회로 횟수를 늘려 건강상태와 생활실태를 확인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덜어주기 위해 주 2회 전화 말벗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가정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한다.

현재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응급관리요원들이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4830가구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부서비스를 주 2회 이상 진행하며 긴급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은 코로나19로 감염불안과 외출자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어르신을 위해 심리상담사의 전화 상담 서비스를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한편, 경로식당이 폐쇄됨에 따라 각 시군은 충북도내 2500여명의 결식 우려 어르신에게 주 1~2회 반조리 식품, 대체 식품(즉석밥, 반찬), 도시락 등을 제공하고, 3000여명의 거동불편 재가노인에게 반찬배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기 충북도 노인장애인과장은 "노인복지관 임시휴관과 제한적 방문서비스로 주변에 취약 어르신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충북도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도내 어르신들이 안전과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043)255-0504, 253-0504 FAX:(043)222-0504
H.P: 010-9566-0504 E-mail:youhansa@hanmail.net
각종교육교재
책자제본·스프링제본
칼라복사·칼라출력
대형코팅·현수막출력
대형칼라흑백출력

진천군 재해구호 자체 매뉴얼 구축

〈코로나19〉

후원금품 관리체계 마련 투명성 확보… 지원책 강화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복지시설에 의료물품 보급 등

진천군은 24일 기준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철저한 방역관리를 유지 중인 재해구호 자체 매뉴얼을 마련해 추진하며 감염증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조짐에 따라 송기섭 군수의 주문으로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질서 유지 및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해 이번 매뉴얼이 마련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진천군에 접수되는 후원금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시에 필요물품들이 지원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후원금의 경우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 충북지부 2곳에서만 받게 되며 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물품지원반(주민복지과)이 대응부서의 필요물품을 구매해 위 구호기관에 정산을 요청하도록 했다. 후원물품의 경우 방역 · 위생용품은 물품지원반이 접수한 후 군 보건소로 이관해 관리하며, 일반생활용품은 물품지원반이 접수해 확진자 · 격리자 · 지원인력, 확진(격리)발생 지역 주민, 상황종료 후 관내 복지시설, 취약계층 순으로 직접 보급한다.

진천군은 자가 격리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군의 재난관리기금과 도의 재해구호기금을 이용해 1가구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생필품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또한 국 · 도비보조금(국 50, 도 33.3, 군 16.7)으로 14일 기준 1인(45만4천900원), 2인(77만4천700원), 3인(100만2천400원), 4인(123만원), 5인(145만7천500원)의 생활비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진천군은 사회복지시설과 지역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우선 생활시설의 경우 수용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외부인의 출입을 최대로 제한해 정상 운영하며 이용시설의 경우 일상생활유지에 필수적인 서비스만 제공하도록 했다.

또 보조금(국 50, 도 20, 군 30)을 이용해 사회 복지시설에 필수 종사자용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보급하고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도 지원하고 있다.

송기섭 군수는 "진천 인접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한 방역활동과 함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원활하게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 최초 외국인지원센터 음성군에 개소

26억8천여만원 투입… 한국어 교육 · 번역 지원 등 제공

음성군이 도내 최초로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원기관인 군 외국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2일 군에 따르면 지원센터는 금왕읍 금석로 71(무극리 80-7번지 일원)에 사업비 26억8000여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984㎡(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난해 11월 준공됐다.

따라서 군은 같은해 12월 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사)글로벌투게더음성(이사장 김호욱)을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위 · 수탁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센터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한국어 교육, 통 · 번역지원, 상담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내 · 외국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 활동의 거점센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집합교육은 하지 않고 대신 외국인주민을 위해 코로나19 예방법과 대응책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군은 센터 내 북카페, 체력단련실 등 시설의 개방 또한 4월 이후로 연기했으며, 향후 상황에 따라 개방일정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청주시 사회보장 수준 '한눈에'

청주복지재단, 홈페이지 사회보장통계 DB 구축

청주복지재단은 청주시의 사회보장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사회보장통계 DB를 재단 홈페이지(www.cjwf.net)에 구축했다.

매년 '청주복지통계'를 발간하고 있는 재단은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정보 접근성을 향상을 위해 DB를 홈페이지에 구현하는 작업을 해왔다.

이번에 새로 구축한 사회보장통계 DB는 아동돌봄, 성인돌봄,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환경, 여가문화, 총괄 등 모두 10개 영역으로 분류했다.

이는 다시 생애주기 대상(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장년, 노인)과 특수욕구 대상(장애인, 여성, 가족, 저소득층), 기타(일반)로 나눠 구분했다. 재단은 각 지표별로 정의 및 산출방법 등을 제시하고, 그래프를 구현해 연도별 변화 추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구축된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남미옥 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사회보장통계 DB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청주시의 사회보장 수준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수립 · 시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독립 어려운 노인, 빈틈없는 '안심케어'

진천군 케어안심주택 2호 입주식…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진천군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진천군 케어안심주택' 2호 입주식을 5일 현장에서 가졌다.

케어안심주택은 군유재산 유휴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돌아갈 집이 없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 등에서 장기 입원 중인 사회적 입원어르신을 대상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고령자 주택 모델이다.

이번 케어안심주택 2호 입주자는 장애가 있는 홀몸 노인으로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함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거동불편으로 독립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주거환경은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주택 구조가 원활한 생활을 유지하기에 어려워 요양병원 입소를 고려하던 중 진천읍 사례관리사의 발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됐다.

군에서 추진하는 안심주택 사업은 주거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융화돼 정상적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요 4대 영역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주거안정(케어안심주택 지원, 맞춤형 집수리 등), 생활-돌봄(IoT · 스마트 돌봄시스템 및 비상벨 설치, 영양도시락 지원, 가사지원 등), 보건-의료(방문간호, 치매검사, 건강검진, 복약지도 등), 문화-여가(건강증진프로그램, 공동텃밭, 일상생활지원 등) 등이며 지역사회 병-의원, 기관-봉사단체가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지역 의사가 직접 왕진하고 가정간호까지 연결하는 왕진수가 시범사업과 어르신들의 셀프케어 개념을 도입한 케어-팜(care-farm) 사업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진천군 케어안심주택' 2호 입주식이 5일 현장에서 이루어졌다.

군 관계자는 "지난 1호 안심주택 입주에 이어 2호 보금자리를 오픈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케어안심주택을 비롯해 군에서 야심차게 추진 중인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지역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시 '마음건강 상담전화' 운영

코로나19 대응 시민 정서적 지원

충주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이 겪게 되는 갑작스러운 스트레스와 막연한 불안감을 덜어주고자 '마음건강 상담전화'를 상시 운영한다. 상담 전화 운영은 현재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시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심층 상담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얻고, 부정적인 감정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초기상담이 이뤄진 대상자는 경우에 따라 정신건강 척도검사(우울, 불안, 스트레스, 수면 등)가 진행될 수 있다. 또 고위험군을 선별해 주기적인 심층상담 및 전문의 치료 연계, 치료비 지원사업과 본인 동의가 있으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돼 지속적인 마음건강 케어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마음건강 상담전화 안내문.

"세탁 어려운 매트리스 청소 해드려요"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 대상·본인부담금 없어"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중증장애인과 외상환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매트리스 클린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이 사업은 몸이 불편해 대부분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매트리스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센터는 부피가 크고 무거워 세탁과 통풍, 건조 등이 어려운 매트리스 청소를 위해 청소용품을 구비한 담당자가 집으로 직접 방문해 청소를 담당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거주하며 침대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으로 본인부담금은 없다. 신청은 이번 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접수를 통해 이뤄지며, 접수 후 초기상담과 심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메트리스 클린 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센터(☎ 043-845-4544)로 하면 된다.

제천시 "복지서비스 운영 최적화 박차"

복지재단 설립 추진… 시 특성에 맞는 정책 연구 · 개발

제천시가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연구 · 개발하는 제천시복지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설립 목적은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따른 제천시 차원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컨설팅 지원에 두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경제성, 조직 및 인력규모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을 통해 제시된 재단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복지 조사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복지분야 프로그램 개발 보급, 복지자원 발굴 및 기부문화 확산, 복지시설 및 사업 위탁 수행 등이다.

재단 설립에 대한 시민 설문에서는 긍정의 답변이 많다. 5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8.8%의 주민들이 종사자 처우 개선과 교육훈련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시는 16일 시의회에 중간 용역 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연내에 '제천복지재단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초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설립형태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용역사에서 제시한 출연금은 10억원이며, 1국 · 3팀 등 사무국 직원 5명으로 출범한다.

한편 전국 지자체 중 복지재단을 둔 시 · 군은 총 44개로, 도내에서는 청주시와 증평군이 지난 2012년, 2010년 재단을 설립했다.

단양군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 선정

평생학습도시 단양군이 충북도와 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 군 평생학습센터는 이번 공모에서 시 · 군 평생교육 활성화와 청년세대를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등 2개 분야가 선정됐다.

센터는 올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맞춤형 특성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5월부터 진행되는 맞춤형 특성화 프로그램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와 군민 주요 관심사인 건강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자세한 내용은 군 평생학습센터(☎ 043-421-7909)에 문의하면 된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 영 석 사회복지출판 · 홍보위원장 박 상 준 편집고문 겸주필 김 춘 길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ssn@naver.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2월 푸드뱅크 · 푸드마켓 식품기부자 명단

- 푸드뱅크는 소외계층을 위한 식품 나눔 은행입니다 -

■ 충북광역푸드뱅크
(주)에스앤푸드, CJ신선 진천센터, GS리테일 발안물류센터, 롯데칠성 광명센터, CJ나눔 계룡센터, CJ수원반품센터, 대상 양지센터, 대상 용인 저온센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농협, 충북낙농농협, 나눔축산운동본부, 중원랜드, 한우협회, (주)파낙산, (주)대승푸드, 롯데푸드, 체리부로, CJ유통(증평점), 송림푸드, 청주유통, 에버리치, CJ신선 덕평센터, 롯데칠성 대전센터, 중앙제관(주), 롯데네슬레 청주공장, LG생활건강, (주)옐로드림, 송림푸드, 대상 덕평센터, 시아스 청주공장, 영농법인 무지개농장, (주)더불어, (주)피아이씨푸드, (주)금강B&F, KGC인삼공사 충북지점, 투썸플레이스, 참맛식품, 라온엘에스, 주식회사 지지코리아

■ 청주흥덕기초푸드뱅크
동양오츠카충청청주지점, 롯데제과(주)청주영업소, 마늘보쌈, 설악추어탕, 좋은아침, (주)케이씨푸드, 명동보리밥, 삼육두유서부대리점, 좋은아침, 피자헛 청주대점

■ 청주사랑나눔푸드뱅크
참조은유통 ,델리스(분평동) ,백설유통 , 홈플러스익스플러스,좋은아침(가경점), 파리바게트(개신점), 파리바게트(복대점), 바누아투, 좋은아침(복대점), 뚜레쥬르(비하계룡점), 던킨도너츠(강서점), 팡스팡스, 롤링핀(지웰시티점), 이츠굿베이커리, 금관마트, 동청주오뚜기, 초이스베이커리, 플로리안, 좋은아침(성안점), 좋은아침(성화점), 파리비게트(가경대우), 정도너츠, 바로구운빵 ,도담영농조합법인, 청풍명월, 명성물류, 머거바식품, 자연솔푸드, 푸드글로리, 한솥, 비젼상사, 태성운수, 도담, 등고개농장, 제훈유통, 장수유통, 오뚜기대리점, 중앙제관(주)

■ 청주드림푸드뱅크
파리바게트(원평점, 분평우성점, 금천부영점, 산남점, 농협하나로점, 용암효성점, 용암현대점, 건영점, 뉴타운점, 율량칸타빌점, 율량점, 개신점), 수암골 영광의제인, 좋은아침 오송점, 서문우등, 용암서문우동, (주)떡과풍경, (주)민영, 김태환베이커리

■ 청주제일푸드뱅크
청주제일교회, 한기장복지재단, (주)한백식품, 뚜레쥬르 율량점

■ 청주새영푸드뱅크
좋은아침오창점, 파리바겟트쌍용점, 뚜레쥬르한라점, 뚜레쥬르산업단지점, 기분좋은날, 그린하우스과자점, 오창홈마트, 자갈치 민속떡집, 찰떡궁합, 광주기독교서점, 전원푸드락, 낙원떡방

■ 청주구세군푸드뱅크
주식회사 시아스, 뚜레쥬르 금천장자점, 파리바게뜨 분평점, 한솔 제2농장, 궁전떡집, 금관할인마트, 해신수산, 뚜레쥬르 금천뉴타운, 따베오베이커리, 행복&떡집, 유신찐빵, 파리바게뜨 청주제일점, 떡이랑, 뚜레쥬르 청주용정점, 파리바게뜨 청주용암덕일점, 영농조합법인 희여울, 홈프러스 익스프레스 청주용암점, 천명영농조합법인, 정수기획(후생사), (주)월드이십일에이치규, 자연애연합영농조합법인, 천명, 김가네 생고기정육점, 파리바게뜨 청주제일점, 주주랩, 서울우유치즈, 시아스유통, 두레쥬르 분평점, 목행청과, 금관할인마트 율량점, 청주특판(주), 무와에뚜와

■ 청원기초푸드뱅크
(주)우리농, 산과들F&C, 파리바게뜨 오창중앙점

■ 증평군푸드뱅크
거림기계, GS슈퍼 증평점, 케익하우스, 금호숯불갈비, 서신식품, 좋은아침 율량점, 파리바게뜨 내수점, 한그루식품, 오뚜기, 단비상사, 던킨도너츠 증평점, 델리퀸 증평점, 그린유통, GS25 증평대로점

■ 괴산군기초푸드뱅크
진미식품, 괴산잡곡, 신선나뚜, 신선촌, 운산식품, 제중당약국, 풀무원, 서미숙, 유인숙, 장국희, 따삐오베이커리, 뚜레쥬르괴산점, 파리바게트괴산점, 매크로통상, 미미식품, 한살림축산식품, 주성베이커리

■ 옥천군푸드뱅크
뚜레쥬르 엘마트점, 구가네 능이보감, 조마루 감자탕, 독도가든, 행운목, 미가(한정식), 이가화로, 옥천청담로타리클럽, (주)한일후드

■ 영동나눔푸드뱅크
뚜레쥬르(김홍욱), (주)벧엘육가공

■ 보은군기초푸드뱅크 (T. 543-6255)
서울우유(보은점), (주)서울향료,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 음성군푸드뱅크
CJ푸드빌, 꽃피는아침마을, (주)다농원,삼원농장, 영양떡방앗간, 김이박부대찌개, 던킨도너츠(금왕),(주)이가자연면, (주)후드원, 김점철소머리국밥, (주)맑은해오름, (주)풀무원, (주)맑은식품

■ 진천군푸드뱅크
삼진푸드, 뚜레쥬르(성모병원점), 면사랑, 체리부로, 조인, 목우촌, 동원(이천,백암), 삼육두유, 파리바게뜨(덕산점)

■ 진천나눔과기쁨푸드뱅크
파르바게트 진천장관점, 태남 메디스코, 신토식품, 윤지영, 김정식, 리브가왕만두찐빵, 김수향, 델리퀸(이월점), 에스앤푸드, 자혜식품, 명가떡집, CJ푸드빌, 해마로푸드서비스, 파스쿠찌, 행복한 떡집, 이삭식품, 명가떡집, 생거진식품, 맑은해오름

■ 충주기초푸드뱅크
고인돌식품, 대하유통, 델리퀸충주교현점, 떡보의하루, 뚜레쥬르 주덕점, 롯데제과(주)충주영업소, 삼성청과유통, 삼일상회, 서울우유치즈충주대리점, 유원유통, 육사청과, 은혜청과, (주)미림농산, CS코리아,자미원에프앤지,충주청과,하나로베이커리(충주점), 한아름청과

■ 제천시푸드뱅크
건국유업, 두리메링게, 롯데제과 제천, 박달재씨푸드, 문유통, 씨알푸드, 오뚜기 제천점, 오뚜기, 태성김치, 푸른촌, 풀잎라인, 365할인마트, 크리스피크림제천중앙점, 호수상사

■ 단양군푸드뱅크
진천면사랑, 진천SN푸드, 음성CJ, 음성(주)조인, 충주김치나라, 제천푸른촌, 롯데칠성, 일죽청정원, 제천씨알푸드, CJ 진천, 단양(주)정풍, 단양두승식품, 서울우유 단양대리점, 빠리바게트 단양대리점

■ 단양나눔과기쁨기초푸드뱅크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광주파리크라상업체, 신선초, 하림, 맑은식품, 한돈, 썬데이푸드, 대상청정원

괴산군, 공공급식 지원센터 건립

괴산대제산단 내 조성… 20억원 투입 · 2022년 개장
군 "안전한 먹거리 제공 · 농산물 판매 활성화 기대"

괴산군이 충북도가 공모한 '공공(학교)급식 지원센터 건립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15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수입농산물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로컬푸드의 급식 조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20억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억원 포함)을 확보, 내년까지 괴산대제산업단지 내 5293.7㎡ 규모의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집하한 뒤 선별 · 포장해 지역 학교 등에 급식 재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가 들어서면 농산물 판로가 확보돼 지역 중 · 소농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교 등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된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을 계기로 공공조달체계 운영시스템을 확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군은 사업준비(2020-2021년) 사업추진(2022-2023년) 사업활성화 · 안정화(2024-2025년) 등 단계별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는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신선한 안전 먹거리를 제공하고 우수한 친환경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농가소득 향상과 주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영동 상가리 · 법화리, 새뜰마을사업 선정

다목적 시설 신축 · 안전난간 설치 등 생활여건 개선 기대

영동군의 농촌마을들이 밝고 희망찬 마을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의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에 영동읍 상가리와 용산면 법화리의 농촌지역 2개소가 선정되었다.

새뜰마을사업은 지역의 취약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택정비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휴먼케어사업 등을 병행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선정 지역은 2018년부터 마중물사업으로 행복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주민 공동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이번 공모에 선정됐다.

군이 군민과 지역 동향을 수시로 살피고, 지역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계획하는 데 꼼꼼하게 노력한 결과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물리적 및 '관'주도의 사업과는 달리 주민이 능동적인 역할을 맡아 계획 수립과 함께 사업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영동읍 상가리 사업대상면적은 32.4ha로, 21억3천4백만원이 투입돼 태양광가로등 설치, 하수도 정비, 다목적커뮤니티시설 신축, 노후담장 개량 등을 추진한다.

용산면 법화리는 17.ha 정도로, 18억6천6백만원이 투입돼 반사경 설치, 마을안길정비, 안전난간 설치, 마을공방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들 마을은 주택 및 기반시설 노후, 주민 고령화 등으로 기초생활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이었지만 사업을 통해 정주여건과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업 이후에도 주민 자생이 지속 가능하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선두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오는 6월경 기본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12월 설계를 마치고, 2021년 3월 착공해 2022년 12월경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아이들 교육, 보은군 전체가 함께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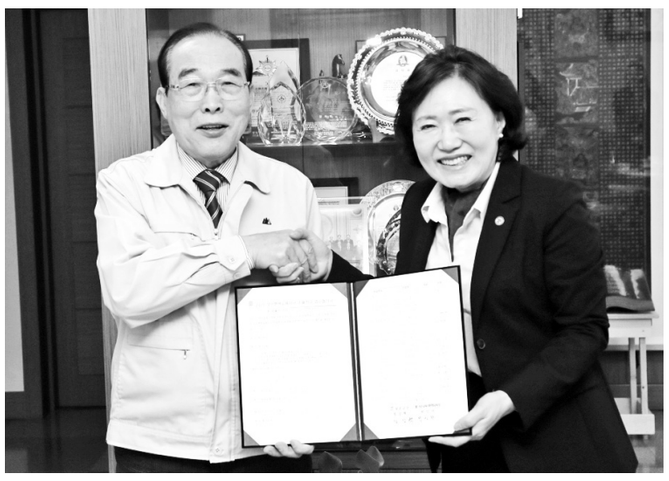
보은군-보은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협약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인자)과 보은군(군수 정상혁)은 4일 보은군수실에서 2020 보은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협약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민간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된 19개의 마을학교로 희망공간실(9개)과 마을배움터(10개)로 나뉘어 운영된다.

2020. 보은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를 통해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삶터가 배움터가 되어 우리 아이들이 지역의 주인으로 우뚝 서게 하는 일에 교육지원청과 군청, 마을학교가 함께 힘쓰기로 약속했다.

박인자 교육장은 "행복교육지구는 우리 사회에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커다란 고민을 던진 정책이자 운동이다. 마을학교를 통해 관과 민이 만나고 마을주민과 교사들이 협력하여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게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상혁 보은군수와 박인자 보은교육장이 4일 보은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영동군, 청소년 입학축하금 지원대상 확대

영동군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출산 · 교육환경 조성과 인구늘리기의 일환으로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을 완화한다.

이 제도는 지역 청소년이 최초초 · 중 ·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에 초등학교 20만원, 중학교 30만원, 고등학교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소년을 둔 가정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기존 입학일 기준 부모와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부 또는 모와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군은 지난해 관련 조례인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해 군민들의 혜택을 늘렸다.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는 입학일 이후 주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아이 키우키 좋은 환경 조성과 정주여건 강화를 위해 초 · 중 · 고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군민들의 혜택을 늘리고자 제도를 완화해 추진하니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했다.

보은군보건소,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월 36시간 이내 요양보호사 방문 · 돌봄 서비스 제공

보은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보호 기능을 확대하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줄이고자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은 요양보호사가 월 36시간 이내(하루 3시간, 월 12일)에서 각 가정에 방문해 치매환자의 자립적인 일상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신체기능 회복과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 활동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보은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 50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자와 등급 신청 대기자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지난해 말 기준 751명이다.

이들에게 지원하는 주 내용은 방문요양과 단기보호 서비스 비용 지원 등이다.

환자의 소득 기준에 따라 하루 방문서비스 이용단가 4만7210원 중 최대 4만6380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4만6380원, 차상위계층은 4만4780원, 차상위초과는 4만1750원이다.

치매환자의 건강기준과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제공 기간과 지원액이 다르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비슷한 서비스를 받으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043-540-5644)로 문의하거나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증평군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강화"

군,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대상
불편사항 점검 · 간편식 배달

증평군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 지원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군은 인근 괴산지역에서 경로당 이용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117개 경로당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이용 중단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홀몸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안부전화를 실시해 건강상태와 생활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있고 홀몸어르신을 포함해 경로식당 무료급식 중지로 인해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 등 122가구에 간편식을 배달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긴급보육 현황을 수시로 점검해 보육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개학 연기로 인해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급식카드를 발급하고 보호자에게 변경된 지원 내용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증평군이 복지시설에 마스크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스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2000여 장을 확보해 노인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지원했으며, 향후 물량이 확보되면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추가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태희 군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은 더욱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함께 힘을 모아 이번 사태를 극복하고 더욱 살기 좋은 증평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옥천에 청소년 전용공간 '에너지 충전소' 조성

도내 첫 군단위 여가부 사업 선정… 전문 교육 공간 운영
오는 10월 중 개소… "학교 밖 청소년들 인식개선 노력"

옥천군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진행한 '2020년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국 20개 자치단체가 선정됐으며, 충북 도내 군단위에서는 옥천군이 처음으로 7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군은 군비 3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해 총사업비 1억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용공간 '에너지충전소'를 오는 10월 중 개소할 계획이다.

에너지충전소는 옥천군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내 창고(74.6㎡)를 개조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사회진출을 위한 전문교육을 하는 공간인 카페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곳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바리스타 베이커리 프로그램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카페로 운영하며 사회진입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정지승 옥천군평생학습원장은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추경’ 통과… 민생·경제 살린다

민생 · 고용안정 지원에 3조원
취약계층 500만명에 4개월간
상품권 지급… 모두 2조원 상당
가정양육수당 예산 271억원 확대
6천억원 투입… 고용장려금 확충

정부가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500만명에게 4개월간 모두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TV · 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개인별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민생 · 고용안정 지원에는 3조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 아동 등 모두 500만명에게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저소득층 137만7천가구(189만명)에는 4개월간 월 17만~22만원(2인 가구 기준)어치를 지급한다. 모두 8천506억원어치다.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진다. 생계 ·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13만원, 2인 가구는 22만원, 3인 가구는 29만원, 4인 가구는 35만원어치를 각각 받는다. 주거 · 교육급여 수급 가구는 1인 가구는 월 10만원, 2인 가구는 17만원, 3인 가구는 22만원, 4인 가구는 27만원어치를 받는다.

만 7세 미만 아동 263만명에게는 4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어치를 준다. 모두 1조539억원어치다. 7세 미만 모든 아동이 월 10만원씩 받는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만큼 받는 금액이 한시적으로 2배로 늘어난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도 4개월간 총보수의 20%씩을 온누리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한다. 모두 54만명에게 1천281억원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온누리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해야 한다.

정부는 에너지효율등급제 기준 1등급을 받은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3천억원까지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품목은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등이 될 전망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 유치원 이용 아동이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비해 가정양육수당 예산을 271억원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대상자는 12만9천명 늘어난다. 상반기 내에 대 · 중 · 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 기획전, 판촉, 캠페인은 48억원을 들여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도 6천억여원가량을 투입한다.

먼저 중소 · 중견기업이 청년을 새로 뽑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청년 1인당 최대 3년간을 지원하는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예산을 4천874억원 확충한다.

당초 예상보다 청년들의 이직이 줄어들면서 소요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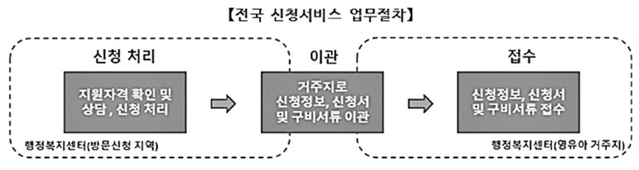
정부는 797억원을 들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인원을 5만명 확대하고, 하반기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으로 폐지했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한다. 이는 저소득층에 3개월간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월 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노동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을 596억원 확충하고, 일자리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국고지원을 2천억원 확대한다.

“주소지 상관없이 복지서비스 신청하세요”

보육료 · 유아학비 등 전국 읍면동 행복센터 어디서나
맞벌이 부모 등에 편의성 큰 개선… 앱 활용 온라인신청도

【전국 신청서비스 업무절차】



보건복지부는 이달 11일부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능을 개선했고 교육부, 여성가족부와도 협의를 마쳤다. 그동안 온라인신청에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신청이 불가했던 조부모나 후견인 등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 보육료 등을 신청해야 했다. 신청인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불편을 겪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근무시간 중 아동의 주소지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조부모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육료 등의 지원대상과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신청은 복지로와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지난해 전체 가구 30%는 ‘1인 가구’

복지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발간… 청년고용률↑
비정규직 비율은 40.4%… 사교육 참여율은 73%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전체 가구의 30%가 1인 가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작년 초 · 중 · 고교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3%였고 1인당 월평균 29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과 삶의 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를 발간했다. 행정기관이 2018~2019년에 발표한 사회통계를 정리한 자료다.

통계집을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1인 가구는 총 599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8%를 차지했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다. 15~29세 청년고용률은 2010년 40.4%에서 2013년 39.5%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 43.5%로 올라섰다.

청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13년 34.0%에서 2019년 40.4%로 증가했고, 이는 2019년 전체 비정규직 비율(36.4%)보다 약 4.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2019년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0.9%로 2018년 60.7%에 비해 조금 증가했다. 남성 고용률은 71.2%, 여성고용률은 5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어린이집 수는 2013년(4만3천770개) 이후 계속 감소해 2018년(3만9천171개) 처음으로 4만개 아래로 감소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증가해 2018년 기준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은 2018년 8.0%였고, 대학에서는 2018년 10.0%를 기록했다.

2018년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2017년 71.2%에 비해 1.6%포인트 증가했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2019년 국가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은 161조원으로 국가총지출의 34.3%를 차지하는 규모였다. 2010년 이후 평균 증가율은 8.9%로 국가총지출 증가율인 6.1%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18년 11.1%로 OECD 전체 평균 20.1%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다만, 최근 10년(2005~2015년) 증가율은 11.0%로 OECD 평균 5.3%보다 2배 높았다.

사회복지사 ‘적정 인건비·지급실태’ 명확해진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 지위 향상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지자체별 적정 인건비 준수율 등 조사… 3년마다 통보해야

앞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준수율 등을 3년마다 조사 · 공표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을 3년마다 조사 ·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을 추가(안 제3조제1항)한 것이다.

이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지급실태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지급실태 등의 조사 관련 규정을 보완해 법령의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된 법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2학년도 대입부터 사회적 약자 선발 의무화

‘사회통합전형’ 법제화… 장애인 등 10% · 지역 학생 10%

저소득층 ·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입 ‘사회통합전형’이 처음으로 법제화된다.

교육부는 대학에 사회통합전형 운영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 관계 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는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약속했던 내용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대학이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자를 일정 비율 이상 모집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담겼다.

사회통합전형이 법제화되는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그동안에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형을 확대하도록 유도만 해왔다.

사회통합전형은 저소득층 ·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형과 지역 학생을 위한 지역균형 전형으로 나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모든 4년제 대학에 의무화된다. 지역 균형 전형은 수도권 대학에 권고된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균형 전형도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모집 비율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 비율을 전체 모집인원의 15~20%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교육계 일각에서 나오지만, 교육부는 ‘10% 이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수도권 대학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학생을 뽑도록 권고된다. 교육부는 이 역시 10% 이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법이 통과되면 수도권 대학은 2022학년도부터 저소득층 · 장애인을 10% 이상, 지역 학생을 10% 이상 뽑아 사회통합전형을 총 20% 이상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또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퇴직하는 대학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3년간 학원 취업만 금지했는데, 교습소 취업과 개인 과외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위반 시 벌칙 조항도 신설된다. 학원 · 교습소 등록을 말소하고 1년 이하 교습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한다.

교육부는 총 3개 법령 개정안을 이달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올해 6월 시행되며, 고등교육법과 학원법 개정안은 6월께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자체도 ‘아동학대자 소환’ 가능해진다

아동 보호의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국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민간 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 조사나 응급조치 등 관련 조치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담 공무원은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학대 행위자를 조사할 수 있으며, 신고 접수 직후 현장 조사 외에도 학대 행위자에게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지자체의 소환조사가 가능해진 셈이다. 현장 출동한 전담공무원이나 전문기관 직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응급조치도 가능해진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 · 시설 · 단체 · 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2. 봉사단 위촉 기준
-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 봉사활동 분야

구 분	내 용
기술 · 기능	디자인, 벽화봉사, 전기 · 가스점검, 집수리, 도배, 기능전수 등
상담 · 정보	법률 및 세무상담, 아동 · 청소년 등 상담(멘토링), 취업, 창업 등 각종상담 및 정보제공
운영 · 지원	재활도우미봉사, 재가대상 · 방문봉사, 행사, 프로그램보조봉사 등
문화 · 예술	음악, 연극, 무용진행 등 공연봉사, 지역문화축제, 지역주민 대상 행사진행 등
교육 · 학습	나눔 · 경제교육, 장애인 · 저소득층을 위한 수학, 영어, 국어, 한문 등 학습지도
노력 · 행정	사회복지기관 · 시설 · 단체노력봉사, 청소봉사, 행정 및 사무지원 등
보건 · 의료	무료진료, 호스피스, 간병, 위문, 운동보조, 병원업무보조 등
교통 · 환경	교통정리, 차량이동봉사, 지역환경 개선, 재활용 및 환경관련 캠페인 봉사 등

4.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중복지원 불가, 충북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참석)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VMS, 복지넷)
- 참여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5. 신청 및 문의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김 민 지 코디네이터

전 화 043) 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코로나19 예방·확산방지 긴급사업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취약계층 등 방역·소독 지원

지원금액 2천여만원… 확진자 인원 수 따라 차등 지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이하 협의회)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충북모금회)의 지원으로 이달부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협의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국가 재난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도내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지역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지원내용으로는 주변의 위생이 불안한 취약계층 밀집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역 및 소독 지원, 사회복지시설·기관의 휴업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위생용품 및 생필품을 지원한다.

1차 지원금액은 2천1백8십2만6천원으로 확진자 발생지역(청주, 충주, 음성, 증평, 괴산)에 지원되며 확진자 인원 수에 따라 지역별 금액이 차등 지원된다.

사업대상자는 해당 시·군협의회(증평의 경우 삼보사회복지관)가 지자체와 연계하여 선정하며, 추가 확진자 발생지역의 경우 충북모금회의 특별모금을 통해 2차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영석 회장은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도민 안전과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긴급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도 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연계를 통해 우한교민 수용지역(진천)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이달 중 진행할 계획이다.

청소년이 제안하는 '희망공약' 각 당에 전달

안전귀가 택시 지원 등

216건 희망공약 모집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은 9일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정의당을 방문해 도내 청소년들과 도민들이 요구하는 '충청북도 청소년을 위한 희망공약'을 전달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미래통합당 충북도당, 정의당 충북도당을 방문해 도내 청소년들과 도민들이 요구하는 '충청북도 청소년을 위한 희망공약'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공약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과 충청북도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충청북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지난달 5일부터 21일까지 17일간 도내 청소년들과 도민을 대상으로 SNS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안을 공모해 모집된 것들이다.

주요 공약은 청소년 복합문화타운 조성, 청소년 스터디카페 설치, 청소년 안전 귀가 택시 지원, 청소년 문화 버스 운행,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마련 등이다.

이날 함께 전달식에 참여한 청소년대표 이찬하(17) 군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청소년이 제안하는 정책이 아니라 선거권을 가진 어른이 제안하는 정책을 주로 청소년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청소년이 직접 제안하는 공약이 많이 채택되어야 한다.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청소년진흥원장은 "기성세대의 우려나 걱정과 달리,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고 미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216건의 청소년을 위한 희망공약이 모집됐다. 이중 청소년은 111건을 제안했다.

'지역주민 소통창구 카카오톡 채널' 개설·운영

청주내덕노인복지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청주내덕노인복지관(관장 길혜정)은 지역주민과 함께 경제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찾고 지원하기 위한 '청주내덕노인복지관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운영을 시작했다.

'청주내덕노인복지관 카카오톡 채널'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지역주민들이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위기가구가 직접 상담을 요청하면 복지관 담당직원이 기초상담 후 가정방문,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을 결정한다.

도움을 원하는 사람 누구든 카카오톡 친구목록 상단에 있는 돋보기 모양의 검색창에 청주내덕노인복지관을 검색해 청주내덕노인복지관 채널에서 친구추가 후 채팅하기를 누르면 가능하다.

기존 카카오톡을 이용하듯이 민원사항, 위기가구 발굴, 복지서비스 안내 등의 내용을 문의하면 빠른 시간 내에 관련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채팅 이용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후 시간에 연락하는 경우 다음날 담당자가 연락하게 된다.

'웹코트'로 언제 어디서나 치매예방 하세요

장소·시간 구애받지 않아… 연구결과 우울 등 호전 입증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센터장 김시경, 충북대병원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2018년 개발된 웹을 활용한 인지훈련프로그램(Web_CoT, 이하 웹코트)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취득 최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웹코트는 인지저하 또는 경도치매환자 뿐 아니라 치매를 예방하고자 인지훈련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웹 인지훈련 프로그램으로 핸드폰, 테블릿, PC 등 인터넷이 되는 장비를 활용하여 장소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인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충청북도민을 위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이다.

웹코트 개발을 위해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는 치매愛기억담기 인지훈련 워크북을 기반으로 도내 작업치료학과 교수 및 충북대학교정신건강의학과의 자문을 거쳐 기억력, 지남력, 문제해결 등 다양한 영역의 인지훈련 과정을 장년코스와 청춘코스 등 총 12세트 70회기로 구성된 웹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특히 웹코트의 임상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충북대 정신건강의학과 박혜미 교수 외 연구진에 의해 연구된 '웹 기반 인지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 예비연구'에서는 웹코트 참석 대상자의 전반적 인지상태와 우울 등의 호전이 임상적으로 입증되어 2019년 10월 '노인정신의학' 학술지에 게제되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

2019년부터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와 도내 모든 치매안심센터는 웹코트 시연과 더불어 정규 12회기 웹코트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는 "웹코트 프로그램을 1·3세대가 함께 공유하여 손자녀가 조부모의 인지활동 증진을 위한 가족프로그램으로 확대된다면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가족 내 치매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인지훈련 등 치매 예방활동이 필요한 모든 사람은 '웹코트(Web_CoT)' 홈페이지(www.webcot.co.kr)에 접속하여 무료로 이용하거나 지역 치매안심센터 또는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043-269-6892)로 문의하면 자세한 이용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충북도,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추진

올 해 중 공청회 등 거쳐 세부실행계획 수립 예정

시설유형별 천양지차인 충북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체계 단일화가 추진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 도입은 이시종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다.

도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중으로 실무추진위원회, 태스크포스(TF)팀 등 구성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단임임금체계의 전면 또는 단계적 도입 등 적용방식과 단일임금안은 세부실행계획 수립단계에서 확정된다.

용역을 수행한 충북연구원의 충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실태 조사 및 임금체계 분석' 결과 도내에는 550개 사회복지시설에 4245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회복지종사자(4245명)의 보수총액은 1328억원(기본급 1033억원, 수당 287억원, 성과급 8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총액 재원별로는 국비 499억원, 도비 219억원, 시·군비 752억원, 자부담 86억원, 후원금 9억원, 기타 21억원 등이었다.

시설형태별 보수수준은 도청 보건복지국 소관 생활시설 종사자자 연간(기본급) 2652만원으로 이용시설 종사자의 2351만원에 비해 301만원 더 많았다.

청주시·충북모금회 '마스크 나눔 운동 추진'

시민 나눔문화 확산 위해 마련

감염 우려 높은 취약계층에 전달

청주시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추진하는 사랑의 마스크 나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한 시민이 기부함에 마스크를 넣고 있다.

청주시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마스크 나눔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스크 나눔운동은 내가 가진 마스크를 나보다 더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는 자발적 나눔 운동이다.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시민들이 십시일반 도움의 손길을 모으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시·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기부받은 마스크는 취약계층을 비롯해 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주민과 의료진 등에 전달된다.

이상익 사무처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작은 실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어려울수록 커져가는 이웃을 향한 청주시민의 따뜻한 마음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시에서 시작한 사랑의 마스크 나눔 운동은 향후 10개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은 10일 흥흥제과로부터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받았다.

"학대피해아동들 건강한 성장에 도움되길"

흥흥제과, 충북아동전문기관 방문 일일 수익금 기부

심리치료·아동 권리증진 사용될 수 있도록 전달 예정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최은희)은 10일 흥흥제과(대표 유진호)로부터 학대피해아동들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받았다.

이번 전달식은 흥흥제과 본점에서 진행됐으며,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흥흥제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 후원금은 흥흥제과에서 일일 수익금을 기부해 마련됐다. 흥흥제과는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배려와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전달받은 후원금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 아동보호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유진호 흥흥제과 대표는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직원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며"흥흥제과 일동의 마음이 담긴 후원금이 학대피해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부금 전달 소감을 밝혔다.

최은희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충북지역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나눔에 앞장서준 흥흥제과에 감사드리며, 전달받은 후원금은 학대피해아동들의 심리치료 및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00년 9월 25일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검색이 편합니다"

충북복지넷
www.043w.or.kr

01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고용및직업
주거지원
보육및교육
의료및건강
요양및돌봄
정신및심리정서지원
문화및여가
권익보장및법률
일상생활지원
기타

02 지역을 선택합니다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03 생애주기를 선택합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04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행정복지센터/노인돌봄서비스/종일/노인
노인종합복지관/9988행복나누미/종일/노인
노인요양병원/노인장기요양서비스/종일/노인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명, 이용시간, 이용대상 까지 한번에 검색되는 '충북복지넷'

코로나19 관련 고용 · 노동 지원정책

코로나19 고용·노동 지원정책

고용노동부

1 근로자편

① 모성보호 급여

- **출산전후 휴가급여**
- **육아휴직 급여**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등**

고용센터 직접 방문없이 인터넷·모바일 신청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② 직업훈련

①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 시험**
일시중단 (3.1 ~ 3.14)

② **국민내일 배움카드 발급**
온라인 신청, 유선상담

③ **출석인정**
*확진자·자가격리 대상자, 자녀돌봄 필요한 훈련자

④ **훈련중도포기**
*불이익 없음

③ 산업안전

- **특수·배치 전 건강진단 유예**
①비말 발생 우려가 있는 검사가 포함된 경우
②발열이나 호흡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직무교육**
위기경보 해제 후 6개월까지 유예

④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 3주 이상 직업훈련 참여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 기존 대부자는 지속 지원, 신규 대부 희망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2 구직자편

① 실업급여

- **구직급여 지급**
구직급여 수혜자 중 희망자는 의무 출석하는 날 없이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통해 구직급여 수급
(최초 수급자격 신청 시 센터 출석)
- **재취업활동**
- 5차 실업인정일 이후 : (기존) 4주간 2회 → (변경) **4주 1회**
- 온라인(워크넷) 입사지원 → **횟수 제한 없이 모두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확진자·격리대상자

- **구직급여 신청 전** 최대 3년간 수급자격 신청 연기 가능
- **구직급여 수혜 중** 치료·격리기간 7일 미만 → 실업인정일 변경가능
치료·격리기간 7일 이상 → 상병급여 지급

② 취업성공패키지

- **초기상담**
대면상담유지
*유선으로 일정 조정가능
- **2회차이후**
유선상담 가능

③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예비교육**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관련 서류 온라인 제출)

④ 직업훈련

-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 시험 중단** (3.1~3.14)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상담**
온라인 신청, 유선상담
- **훈련 중도 포기 시 불이익 없음**
- **출석인정** 확진자, 자가격리대상자, 본인 자녀돌봄 필요 훈련생

⑤ 취업지원서비스

- 대면실시 → **온라인 유선 제공**
- 일자리 정보 → **전화·이메일 등**
- 일부 취업특강 → **온라인 지원**

⑥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 **기존 대부자** 훈련이 중단되더라도 중단 기간 동안 대부 지속 지원
- **신규 대부 희망자** 온라인 접수를 통해 대부 신청 가능

코로나19 고용·노동 지원정책

고용노동부

3 사업주편

① 고용유지지원금

- **요건 완화** 매출액 감소 없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받은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예약 취소, 원자재 수급차질 등
- **지원수준 상향**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1/2~2/3 → 2/3~3/4

② 특별연장근로 신속 인가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인력, 마스크·소독약품 생산업체 등
*사후승인 가능

③ 유연근무제 실시 기업 노무비 지원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 지원
- 지원절차 한시적 간소화

④ 근로감독 잠정유예

- 모든 사업장 근로감독은 3.16 이후로 유예(상황에 따라 추가 연기 가능)
- 의료기관에 대한 근로감독 유예(~상황안정시까지)

⑤ 산업안전

- 모든 근로자 특수·배치 전 건강진단 실시 유예 (별도 공지시점까지)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직무교육 → 위기경보 해제 후 6개월까지 유예

⑥ 외국인 고용허가제

- 외국인 근로자 입국시기 조정가능
- 재입국 특례자 체류기간 50일 연장
*중국, 태국, 베트남

⑦ 사회적기업·지원

- 인건비 지원금 후지급 → 선지급
- 고용유지조치기업 불이익 조치면제

4 대구·경북지역 특별 추가조치

- **근로자 및 구직자**

① 산업안전

- 모든 근로자 특수·배치 전 건강진단 유예

② 고용유지지원금

-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고용조정 불가피 사업주 인정

③ 근로감독

- 모든 사업장 유예
- 신고사건(진정, 고소·고발)
- 2주 간(2.24~3.6) 출석조사 유예
*전화우편조사 활용

④ 산업안전

- **산업안전감독 유예** 산업안전감독 및 재해예방 기관
- **진정, 고발·고소사건** 2주간 출석조사 유예, 전화·우편조사 실시
- **보건관리 지도** 방문지도가 원칙이나, 유선·서면지도 가능

⑤ 외국인 고용허가제

- **민원** 인터넷(https://www.eps.go.kr)으로 신청·발급
- **고용센터 방문 필요 시** 팩스 접수 후 유선 확인

- **사업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가족돌봄휴가 지원 안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용 사업주 지원금
지금 신청하세요!

유연근무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Q.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Q. 지원유형과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유형

시차 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 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 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 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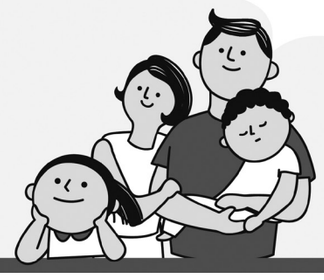
지원기준

기준	연간총액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을 신청하세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
최대 **5일** 지원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 지원!



Q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5.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특수학교·장애인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휴원·휴관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Q 소득수준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나요?
소득 수준 및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신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월 16일 이후 신청 가능)

Q.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문의하나요?
아빠넷 블로그(blog.naver.com/papanet4you) 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주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복지광장

‘세계여성의 날’과 ‘여권통문의 날’을 기념하며

이 남 희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올 봄은 정말 특별하게 맞이했다.

예기치 않게 닥친 코로나19 유행은 황동규 시인의 표현을 빌면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바람이 불고 해가 지는 일처럼 사소한 일”로 여겨지던 우리의 모든 일상을 뒤흔들었다.

3.1절 등 각종 기념일도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갔다. 졸업, 입학, 개학도 제때 할 수 없는 판국에 뭐 그리 대수냐 싶지만, 지나간 법정기념일 중에는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도 있다.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에서 작업장 화재로 숨진 여성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해 광장에 모인 시위에 기원을 둔다.

그 무렵은 과학적 대량생산체계가 도입된 혁신의 시대였지만, 영세 의류업 여성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장시간 일했고 대부분 이민가정 출신이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이들이 직접 나서서 근로시간 단축, 임금인상, 투표권을 요구했기에 더 깊은 울림을 남겼다.

이날의 뜻을 살려 3.8 세계여성의 날을 제정하고 기념사업에 더 많은 사람이 동참하기까지는 몇 번의 변곡점이 있었다.

당시 유럽에서 활동하던 클라라 체트킨과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는 미국 여성노동자의 투쟁을 계기로 세계여성의 날을 지정하자는 제안을 국제사회주의연대 행사에서 내놓았다.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에는 주로 사회주의권에서 3월 8일 ‘여성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시작했다.

여성의 정치 경제적 권리를 신장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여성에게 꽃을 선물하는 날, 그냥 하루 잘해주는 날, 세일 행사하는 날로 의미가 퇴색한 경우도 있었다.

서구까지 세계여성의 날이 확장된 것은 유엔 덕분이다. 유엔은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정하고 1977년부터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공식화했다.

그 배경에는 이 무렵 미국과 유럽에서 68혁명의 여파로 여성운동의 두 번째 물결이 힘차게 일어났던 영향이 있다. 가장 풍요로운 민주사회인 제1세계에서도 여성은 여전히 이등시민이라는 가슴 시린 현실 인식이 1970년대 여성운동의 부활 원인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부터 나혜석 등 몇몇 신여성이 국제부인데이를 기념했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맥이 끊겼다고 한다.

1985년부터 여성단체 중심으로 3.8 기념행사가 시작되어 이어지다가 2018년에 법정기념일 ‘세계여성의 날’로 지정됐다. 2019년 3.8 기념행사의 슬로건은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였다. 올해는 당일 광장에 모이는 행사 대신 3월 30일 18시 유투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기념행사를 한다는 단체 공지가 떴다.

작년에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기념하게 될 법정기념일이 하루 더 있다. 올해부터 9월 1일은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이다. 이날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이 1898년 서울 북촌에서 발표된 날이다.

이름도 없이 이소사, 김소사 명의로 나온 이 선언문에는 여성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여성도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다, 여성도 문명개화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선언에 그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여성단체 찬양회, 우리나라 여성이 만든 최초 여학교 순성여학교 설립 등 실천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이제 우리는 ‘세계여성의 날’과 한국여성의 날인 ‘여권통문의 날’을 모두 기념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여성의 날에 대해 소개하면 남성의 날은 왜 없냐는 질문을 즉각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 여성의 날이 굳이 따로 필요 없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바람은 여성들 편이 오히려 더 클 것이다.

나도 그렇다. 평등은 둘째 치고,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해 각종 여성대상 폭력의 위협 없이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조차 지키기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다. 국민의 절반이 편안하지 않은데 나머지 절반이 행복할 수는 없지 않은가.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현장의 목소리

아동학대, 재학대 예방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송 석 원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올해 1월 계모의 ‘찬물 학대’에 숨진 아동이 발견되었다.

한겨울에 9살 아동을 집 밖이나 다름없는 베란다에, 그것도 찬물이 담긴 욕조 속에 1시간을 방치했다는 건 명백한 학대이다. 아동은 4년 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부모와 분리 보호가 되었다가 2018년에 부모와 아동의 의사에 따라 가정으로 복귀되었으나 결국 11개월 만에 학대로 숨지게 된 것이다.

수십 년간 아동학대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해왔으며, 2014년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으나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기준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총 36,417건으로 전년 대비 약 6.6% 증가했으며, 해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 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4,604건이며, 이중 부모에 의한 학대가 78.4%로 가장 높았다. 또한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2018년에 신고접수 되어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인 재학대 사례는 총 2,543건으로 2018년 전체 아동학대사례 24,604건 대비 재학대 사례는 10.3%이다. 이중 부모에 의한 재학대 사례가 2,427건(95.4%)으로 월등히 높았다.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중 모든 학대 유형에서‘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를 통해, 재학대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함께 부모교육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이 드러났다. 그러나 아동학대 현장에서 만나는 부모의 대부분은 “네가 아이를 키워봤냐”, “네가 데려가서 키울 것 아니면 우리 가정사에 끼어들지 마라”등 아동학대의 원인을 본인의 그릇된 양육관이 아닌 아동의 기질과 문제 행동으로 돌리며 합리화한다. 이런 부모를 만날 때면, 필자는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과업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느낀다.

2019년 5월 정부에서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학대 조사영역은 시군구 공무원이 담당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재학대 위험소멸 시까지 전문적 사례관리 담당 기관으로 개편하도록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법 · 제도적 개편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적 사례관리 담당 기관으로 개편을 위한 법 ·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굿네이버스에서 연구한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연구’(2018)에 따르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월평균 최대 사례 수 적정 기준은 20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만 하더라도 상담원 1인당 2~3배 이상의 사례를 관리하고 있다.

아동학대 대응에 있어 신속성과 접근성, 서비스의 충분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며, 결국 이에 대한 우선 과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인프라 확충이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증진해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고, 피해 아동 조기발견을 통해 심각한 학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굿네이버스에서는 국내 최초로 3년간 효과성 검증을 통해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개발하였으며,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양육기술훈련, 분노조절, 가족관계개선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 사례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서 기관에 찾아오기 힘든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와 심리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끊임없는 아동학대사건 발생으로 인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요즘,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는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사업현장에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협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간다.

열심히 뛴 만큼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정신건강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 받을 수 있을까?”

연 현 진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자신의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시크함이 매력이지만 결정적인 땐 다정한 사람, 동네 분식을 좋아하지만 알고 보니 부자, 모두가 선망하는 외모와 조건을 갖춘 사람이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는 그런 사람.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이니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웃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만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이상형이 아닌 현실 이야기를 합니다.

매력의 요소는 무궁무진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매력 역시 제 각각입니다.

나에게는 호감인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이거나 혹은 혐오이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에는 정해진 것도 없고 법칙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지요.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나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만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의사를 밝힐 때, 혹은 은연중에 피하는 기색을 보일 때 느끼는 극심한 공포와 불쾌감을 “거절에 대한 두려움(rejection fear)”이라고 합니다. 이는 특히 경계성 성격장애의 특성으로 언급되곤 합니다.

병적인(경계성 성격장애로 진단) 수준이 아니더라도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거부감을 갖는 것을 아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그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단순한 대인관계 이상의 가치가 투영되어 있다면 이 두려움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하는 절친한 친구(흔히 베스트 프렌드), 미래를 만들어 줄 스승, 절대 그만두면 안 되는 직장에서의 상사, 생애 한번 뿐인 운명 같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불화나 결별을 경험할 때의 두려움이 그렇습니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잘 가꾸려는 노력은 매우 좋고 중요한 것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역시 관계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관계를 윤택하게 하기 보다는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크면 이별에 대한 걱정이 일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생산적인 성과를 일궈내거나 추억을 만들 소중한 시간들이 “내가 잘못해서 우리 관계가 어긋나면 어쩌지?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를 고민하며 덧없이 혹은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상대방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별 생각없이 툭 던진 말에도 끝없는 고민이 꼬리표처럼 자신을 괴롭힙니다.

이러한 걱정은 “혹시 나를 싫어하는 걸까?”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러한 생각 자체가 서로의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말한디에 상대방의 기분을 살펴며 불필요한 신경을 쓰게 되고 혹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진 않을까 행동도 위축됩니다. 나의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함께 하는 시간이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항상 사랑만 받을 수 없고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곁에 두고픈 사람일지라도 그의 마음이 내것 같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내가 타인을 보는 관점으로 돌려 보는 것이겠죠.

나는 모든 사람을 좋게만 보는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수줍게 들킬까 조심하며 사랑을 하기도 하고, 차마 겉으로 표현도 못하고 말도 못하지만 누군가를 증오하기도 하기도 하고 혐오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런 감정도 없는 사람이 더 많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나를 흠모하기도 하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내게 무관심하며 안타깝게도 누군가는 나를 미워하기도 하겠죠. 내가 삶을 잘못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친절하게 싸우지 않고 갈등없이 지내야 하는 관계가 있고, 싸우고 갈등이 발생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달의 법률상식

친족상도례

라혜영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1년 전 연락이 뜸했던 육촌동생으로부터 갑자기 천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다음 달에 적금을 타게 되면 금방 갚겠다는 동생의 말을 믿고 바로 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알아보니 육촌동생은 이미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동생이 딱해서 그냥 천만원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최근 동생을 다시 만났는데 사과는커녕 너무 당당하게 자기는 갚을 의무가 없다며 오히려 제게 큰소리를 칩니다. 너무 억울한데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A. 우선 육촌동생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빌릴 당시에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83도1048판결). 즉 육촌동생은 돈을 차용할 당시에 이미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형법은 친족의 재산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습니다.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외의 친족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8조 참조).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가해자가 육촌동생이므로 8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고 비동거 친족간에 사기죄를 범한 경우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내에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질문자의 경우는 약 1년 전 사기를 당했으므로 고소기간을 경과하여 더 이상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와 관련된 빚은 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탕감되지는 않으므로 설사 가해자가 파산면책선고를 받더라도 질문자의 돈은 변제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6조).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뿐 이와 별개로 사기죄는 성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지정보 제공

[사랑의열매&마중물]"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참여자 & 사업체 모집
■ 신청 및 모집기간 : 2020.2.10.(월) ~ 2020.12.20.(일)
■ 대상 :
– 훈련생 : 만 15세 이상의 중증정신장애인으로 취업의사가 있는 당사자
– 사업체 :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 지원고용(훈련수당) 지원금 (1인기준)
– 훈련생 : 훈련준비금 : 40,000원 (6일 이상 출석 시 지원), 일비 1일 기준 17,000원
– 사업주 : 훈련보조금 : 1일 19,340원
■ 모집기간 : 상시모집
■ 지원고용 훈련기간 :사전훈련(최대6일), 현장훈련(4주~6주), 훈련시간(1일 4~8시간)
■ 주관 : 우리들정신건강센터
■ 문의 : 043) 267-5835, 285-5835
■ 참고 : http://www.woorideul.or.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함께 여는 자동문' 무료자동문설치 캠페인 공고
■ 접수기간 : 상시접수
■ 신청대상 : 사회취약층을 위한 시설이라면 제한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코아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 접수하면 완료
■ 선정방법 : 매월 25일 접수 받은 사연을 검토하여 매월 1곳 선정
■ 문의 : 1899-7081 또는 coad@coaddoor.com
■ 참고 : https://www.bokji.net

[밀알복지재단]2020년 국내장애 및 저소득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사업명 : 장애영유아 의료비, 장애아동 결연의료비, 장애아동 수술비, 안면장애인 수술비, 위기가정 지원
■ 기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중위소득 80% 미만)
■ 신청기간 : 2020.3.1.(일) ~ 2020.12.31.(목)
■ 신청방법 : 신청서와 구비서류 밀알복지재단 법인메일로 상시접수
■ 제출서류 : 홈페이지 참조(https://www.miral.org)
■ 문의 : 국내사업부 지원사업 담당자 (070-7462-9135)

[여송사회복지재단]'함께독서' 도서 무료배포 안내
■ 보급대상 :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
■ 보급권수 : 1기관 최대 2권까지
■ 신청방법 :
– 이메일 접수(childlovesky@hanmail.net)
–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도서 보급 공지사항- 신청양식 확인- 이메일 발송
■ 신청기간 : 수시
■ 배송관련 : 택배비 기관 부담(착불 5,500원)
■ 유의사항 : 기존에 신청한 기관은 제외
■ 문의 : 여송사회복지재단 사무국 ☎ 02-553-3488

[따뜻한동행]2020 첨단보조기구 지원사업 모집 안내
■ 지원대상 : 분야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역량있는 장애인
– 문화체육, IT&과학기술, 예술, 사회교육 분야
– 성장의 잠재력이 있는 아동 · 청소년
■ 지원내용 : 장애유형별 맞춤형 첨단보조기구 지원
– 당사자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한 지원품목 결정
※ 단순 이동 목적의 수동 및 전동 휠체어 지원 제외
■ 접수기간 : 2020.3.10.(화) ~ 7.10.(금)
■ 신청방법 :
– 따뜻한동행 홈페이지 공지사항 신청서 다운로드(www.walktogether.or.kr)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ddadong@walktogether.or.kr
■ 문의 :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070-7118-1937)

[푸르메재단]2020 코비에셋 장애어린이 영재발굴단 지원사업 안내
■ 지원기간 : 2020.5. ~ 10.
■ 신청기간 : 2020.3.16.(월) ~ 2020.4.17.(금)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어린이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지원내용 : 특기 및 재능이 우수한 장애어린이 교육비 집중 지원(특기적성 및 예체능 교육비/학습비/관련 교구 구입비)
– 지원금액 : 최대 400만원
–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 지원인원 : 14명
■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담당자 이메일 접수)
■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02-6395-7018 / khm7018@purme.org)
■ 참고 : http://purme.org

[아산사회복지재단]제32회 아산상 후보자 추천 안내
■ 시상내용 :
– 아산상(단체 1명)-3억원
– 의료봉사상(단체 1명)-1억원
– 사회봉사상(단체 1명)-1억원
– 복지실천상(3명)-각 3천만원
– 자원봉사상(단체 3명)-각 3천만원
– 효행가족상(3명)-각 3천만원
■ 추천인 자격 : 전국 시 · 군 · 구청 및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의 장 / 대학의 장 / 사회단체의 장(지회장 포함) /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관련 단체의 장(지회장 포함) / 의료기관 및 관련 협회의 장 / 재단이 위촉한 인사
■ 추천서류 : 홈페이지 참조(https://welfare.asanfoundation.or.kr)
■ 추천기한 : 2020.4.24.(수) 18시까지
■ 수상자 발표 : 9월 예정
■ 시상 : 2020.11.25.(수) 예정
■ 문의 : 재단 사무처(02-3010-2559,2560,2564)

[한국의료지원재단]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전자업계 중소기업 전 · 현직 근로자로 근무 중 재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 / 산재보험 대상자와 비대상자 모두 포함(산재 승인 여부 무관)
■ 지원 기준 및 내용 :
– 치료비(간병비 포함)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우선지원
– 재활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재활약제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우선 지원
– 건강 유지 · 증진을 위한 생활비 지원 (생활비 단독 지원 불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를 지원
■ 신청방법 : E-mail 접수 : komaf0412@naver.com
■ 문의 : 한국의료지원재단 : 02-6212-9753, 02-6212-9755
■ 참고 : http://komaf12.org

자원 봉사자 모집

▶ 문진안내 봉사
관리센터 : 인구보건복지협회 청주성폭력상담소
활동기간 : 3.1 ~ 4.30
전화번호 : 043-264-1366

▶ 미술교육 지도
관리센터 : 늘푸른아동원
활동기간 : 3.1 ~ 4.30
전화번호 : 043-236-6696

▶ 이미용 봉사
관리센터 :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활동기간 : 3.1 ~ 4.30
전화번호 : 043-216-0031

▶ 영어, 수학 학습지도
관리센터 : 동산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 3.1 ~ 4.30
전화번호 : 043-273-5075

▶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관리센터 : 청주내덕노인복지관
활동기간 : 3.1 ~ 4.30
전화번호 : 043-216-9811

▶ 지역아동 학습지도
관리센터 : 한빛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 3.1 ~ 4.30
전화번호 : 043-855-1090

▶ 저소득 가정 1:1 멘토링
관리센터 : 충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기간 : 3.1 ~ 4.30
전화번호 : 043-857-5960

▶ 업무보조
관리센터 : 청주정신건강센터
활동기간 : 3.1 ~ 4.30
전화번호 : 043-284-0103

▶ 도서관 도서 정리
관리센터 : 충청북도교육도서관
활동기간 : 3.1 ~ 4.30
전화번호 : 043-267-4590

▶ 문화예술 공연 봉사
관리센터 : 수정노인의집
활동기간 : 3.1 ~ 4.30
전화번호 : 043-218-3436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 연중
전화번호 : 043-234-0840~2
*자료출처 :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봉우회, 무료급식 봉사활동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봉우회(회장 김종섭)는 지난 2월 9일 청주시 중앙공원에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우회는 2010년 9월에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김종섭 회장은"이곳을 찾는 분들은 주로 한 끼가 하루의 전부인 분들인데 식사 후 남는 음식을 싸가 집에 가져가시거나 오지 못 하는 친구나 이웃에게 나눠주는 분들이 적지 않다." 며 "코로나 19로 인한 급식이 중단되어 갑갑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이웃 어르신들을 봉사자가 아닌 이웃의 얼굴로 살피고 도왔으면 좋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cbssn@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복/지/만/평

성냥

이창신 www.bokmani.com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합니다.